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친구관계 비교 분석*

김 의 철

인하대 경영학부

박 영 신[†]

인하대 교육학과

탁 수 연^{**}

인하대 교육대학원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친구관계를 비교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대상은 총 510명으로서, 보호관찰청소년 253명(재범 51명, 초범 202명)과 범죄 경력이 없는 일반청소년 257명이었다. 분석결과,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모두 괴로울 때 친구에게 의논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친구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고 지각하였고, 친구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뢰하는 경향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나 친구와 구체적인 활동 장소 및 활동 내용을 보면, 보호관찰청소년은 친구와 주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일반청소년은 주로 학교에서 같이 노는 경우가 많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또한 보호관찰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퇴학된 친구 수, 보호관찰 받은 친구 수, 소년원 경력이 있는 친구 수가 더 많았다. 보호관찰 경력별로 보면, 재범집단이 초범집단보다 공범친구가 보호관찰을 받거나 소년원에 다녀온 횟수가 더 많았다.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판별분석한 결과, 퇴학된 친구 수, 보호관찰 받은 친구 수, 소년원 경력이 있는 친구 수가 두 집단을 판별하는 매우 의미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재범 및 초범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별분석을 한 결과, 퇴학된 친구 수, 보호관찰 받은 친구 수, 소년원 경력이 있는 친구 수만이 아니라, 공범친구의 보호관찰/소년원 경험 횟수도 의미있는 판별변인으로 포함되었다.

주요어 : 보호관찰청소년, 일탈행동, 친구관계, 퇴학된 친구 수, 보호관찰 받은 친구 수, 소년원 경력이 있는 친구 수, 공범친구

* 이 연구는 2010년도 인하대학교 교수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박영신,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402-751)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E-mail: yspark@inha.ac.kr

**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계약제 대우강사

청소년들이 왜 일탈행동을 하는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청소년 개인의 특성이 일탈행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밝힌 연구들이 있다. 신경민, 신윤미, 김선영과 조선미(2010)가 초기 아동기부터 청소년기까지 6~8년 동안 종단적으로 추적한 결과에 의하면, 인구사회학적 요인보다는 아동기의 개인적 요인이 청소년기 비행 성향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이희정과 이성철(2005)이 초범과 재범 보호관찰청소년 및 일반청소년의 도덕적 정서 개념을 비교하였을 때, 보호관찰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가해자에 대한 정서반응에서 죄책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Kim, Park과 Kim(2007)의 연구에서도 도덕적으로 이탈된 청소년일수록 폭력가해행동에 개입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에서부터 중학교 1학년을 거쳐 중학교 3학년이 되기까지 종단적으로 추적하였을 때, 이전의 심각한 일탈행동 경험은 후속되는 심각한 일탈행동에 의미있는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청소년 개인의 심리 행동적 특징 외에, 환경 변인의 영향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검토되어 왔다. Park과 Kim(2003)은 청소년 일탈행동 형성에 대한 개념모형을 설정하고,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개인특성으로서 청소년의 심리 행동적 측면 외에도, 환경특성으로서 가정환경과 학교환경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청소년 일탈행동에 대한 가정환경의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하위변인들의 맥락 속에서 검증되어 왔다. 박영신과 김의철(1998)이 가정환경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일반청소년의 부모보다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는 비행청소년의 부모들이 자녀의 성취에 대해 관

심을 갖고 격려하는 정도가 낮았으며 사회적 제적지위도 낮았다.

환경 변인으로서 가정환경 외에도 청소년들에게 학교환경이나 사회환경은 중요하다(김의철, 박영신, 1999). 학교환경에는 학교 내 시설이나 학교주변 환경 등 물리적 환경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측면에서 교사와의 관계라든가 친구관계가 포함된다. 친구관계는 학교 내에서의 친구관계도 포함하지만, 특히 일탈청소년 경우는 학교 밖의 친구관계라든가 또는 공범관계 등도 포함한다. 일반청소년들 경우는 친구라 하면 거의 대부분 학교 다니면서 사귀는 친구들이 중심이 되지만, 일탈청소년들은 오히려 이미 퇴학이 되었다든가 소년원 경력이 있는 등 학교 밖의 친구들과 더 밀접히 교류하며 강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 중에서 친구관계에 주된 관심을 둔다. 아동기까지는 인간관계의 중심에 부모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청소년기에는 친구와의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친구의 사회적 지원이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 박영신과 김의철(2006)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사회적 지원, 교사의 사회적 지원 및 친구의 사회적 지원은 발달단계에 따라 변화되었다. 그러한 사회적 지원들이 변화의 패턴에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즉 부모의 사회적 지원은 초등학생 시기에 가장 높았으며, 중, 고, 대학생으로 갈수록 낮아져서 대학생 시기가 되면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모의 사회적 지원을 가장 적게 받았다. 그런데 교사의 사회적 지원 경우는 초등학생 시기에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생 시기였으며, 이어서 중학생, 대학생의 순서로서, 대학생 때 교수로부터 사회

적 지원을 가장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 시기에 교사의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는 점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차이가 있었지만, 어쨌든 교사의 사회적 지원은 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마찬가지로 초·중·고등학생 시기에 가장 높고 대학생 시기에 가장 낮은 점에서 일치하였다. 그런데 친구의 사회적 지원은 부모의 사회적 지원과는 정반대로, 초등학생 시기에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생이었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동일하게 가장 높았다. 즉 아동기인 초등학생 시기에는 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교사의 사회적 지원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지만, 중학생 시기부터는 부모와 교사의 사회적 지원이 감소되면서 오히려 친구의 사회적 지원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고등학생 시기 이후에는 친구의 사회적 지원이 더욱 중요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동기에 비해 청소년 시기에 친구가 중요하고 친구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시기의 친구관계에 주목하면서, 특별히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친구관계에 관심을 둔다.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일탈행동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이 있다. 김경연과 하영희(2003)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규칙위반행동이 친구의 규칙위반성향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모두 일치하였으며, 남학생과 여학생에서도 동일하게 밝혀졌다. 친구의 규칙위반성향은 청소년의 죄책감이나 도덕적 이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청소년의 규칙위반행동에서 친구 영향력의 중요성이 밝혀졌다. 박순길, 조증열과 박영호(2003)가 중학생들의 흡연에 대해 연구하였을 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또래비행동조였다. 중학생들의

또래 비행에 대한 동조는 신체적 성숙 정도나 스트레스보다 훨씬 중학생들의 흡연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급에서 가장 친한 친구를 선택하게 한 뒤에, 가장 친한 친구가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분석한 박영신과 김의철(2010)의 연구에서는 친구의 영향력이 부모자녀관계의 영향보다 더 큰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부모의 통제나 부모와의 갈등 및 청소년의 자기효능감도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만, 친구의 사소하거나 심각한 일탈행동이 훨씬 더 강력한 직접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계 고등학생이나 전문계 고등학생 집단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친구의 일탈행동은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희화(2009)의 연구에 의하면 또래동조성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점진적인 증가를 보이다가 중학교 2~3학년부턴 일정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친한 친구의 비행수준이 높으면 또래동조성의 증가에 따른 비행의 증가가 이루어지기 쉬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조윤주와 강관혜(2010)는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초·중·고등학생의 가출에 미치는 영향에서 비행친구가 매개효과를 나타냄을 밝혔다. 비행친구는 초·중·고등학생의 가출에 직접적인 효과를 갖는 동시에,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가출에 미치는 영향에서 간접적인 역할도 함으로써, 비행친구가 이들의 가출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기원(2006)은 비행친구가 청소년 비행의 원인인지 아니면 결과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행친구

와 청소년 비행 사이에는 순환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비행친구와 교류하는 것이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되는데, 동시에 비행의 결과로서 비행친구와 교류도 늘어났다.

비행친구의 접촉이 청소년 일탈행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있다. Lee와 Kim(2003)은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학교폭력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것으로 밝혔다. 이은희, 공수자와 이정숙(2004)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경로분석 하였을 때, 비행친구 접촉은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강력한 정적 효과를 나타내었다. 즉 비행친구를 많이 접촉할수록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더 많이 함으로써, 비행친구 접촉은 폭력행동을 촉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비행친구 접촉은 폭력유발적 지역사회환경 및 폭력보호적 학교환경과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서,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간접적인 영향도 있었다. 즉 폭력유발적 지역사회환경은 비행친구의 접촉을 증대시키고, 폭력보호적 학교환경은 비행친구의 접촉을 감소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 지역사회환경이나 학교환경 변인들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과정에서, 비행친구 접촉은 중개효과를 가졌다. 김선애(2006)도 비행친구 존재 유무가 학교폭력피해나 학교폭력가해 모두에 대해 가장 설명력이 큰 변인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비행친구의 수가 지속적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이 밝혀졌다. 김희화(2001)가 청소년의 초기 비행과 지속적 비행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초기 비행요인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학업성적이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 반면에, 지속적 비행요인은 가정적 자아존중감과 비행친구

의 수가 중요한 변인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행친구의 수가 청소년의 비행지속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친구관계와 관련하여 분석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청소년들의 일탈행동 정도와 친구 변인간의 관계를 규명하기보다는, 일탈행동의 정도가 심각하여 이미 사회적인 범죄행동으로 되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 집단과 일반청소년집단의 친구관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질적으로 다른 집단간의 친구관계에 대한 비교를 통해, 청소년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친구관계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보호관찰청소년들은 범법행위를 하여 이미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친구관계를 비교하는 것은 일반청소년 집단내에서 일탈의 정도에 따른 비교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친구관계에 대해 의미있는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보호관찰청소년이 범법행위를 반복하여 보호관찰이 누적되면 결국 소년원에 수감된다. 그러나 보호관찰 기간을 성공적으로 보내게 되면 범법자로 낙인되지 않고 수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반성하고 변화될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관찰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도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친구관계에 대한 연구는 의의가 있다.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친구관계 비교만이 아니라, 보호관찰청소년을 초범과 재범 집단으로 분류하여 친구관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

다. 보호관찰청소년 경우는 일반청소년과 달리, 친구관계만이 아니라 공범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4)가 진행되었으나, 부모자녀관계만이 아니라 친구관계에 대해서도 분석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관련 예측변수를 탐색한 이수정과 홍영오(2005)의 연구에 의하면, 보호관찰청소년들의 재범관련 행동을 유의미하게 예측해준 변인들로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수용의 정도, 학업의 안정성, 교육연수, 보호관찰관의 질의에 대한 답변태도, 범행에서의 공범 수 및 집행유예 전력이 부각되었다. 여기에서 보호관찰청소년의 재범이 범행에서의 공범 수와 의미있게 관련되어 있음에 주목하게 된다. 노일석(2009)이 보호관찰기간 동안 재범한 청소년 절도사범과 재범하지 않은 청소년 집단을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재범집단과 비재범집단은 부모직업, 주택소유, 부모형태, 학력, 중퇴경험, 중퇴상태, 가출경험, 약물경험, 최초범죄 연령, 가출횟수, 음주빈도, 공범 유무, 피해자 합의, 범죄책임회피, 개시연령, 총범죄(비행) 경력, 보호처분경력, 보호관찰경력과 같은 19개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서 공범 유무가 의미있는 변인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보호관찰청소년들의 재범과정에서 공범 유무 또는 공범 수 등 공범친구와 관련된 특징들이 설명력 있는 변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에 토대하여, 재범 및 초범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친구

관계를 비교 분석하는데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 있다. 더불어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판별하는 친구관계 변인들과, 나아가서 재범 및 초범 보호관찰청소년을 판별하는 친구관계 변인들도 밝히고자 한다. 재범 및 초범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 집단의 괴로울 때 의논대상, 친구와 활동 장소, 친구와 활동 내용, 친구와 함께 있으면 좋은 점, 친구를 신뢰하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퇴학된 친구 수, 보호관찰 받은 친구 수, 소년원 경력이 있는 친구 수에 대해서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보호관찰청소년 내에서 재범 및 초범으로 구분되는 보호관찰 경력별로 공범친구의 보호관찰/소년원 경험 횟수에서의 차이도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나아가서 이러한 친구관계 변인들이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판별하고, 재범 및 초범 보호관찰 청소년을 판별하는데 의미있는 변인으로 작용하는지 여부를 판별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 법

분석대상

이 연구를 위하여 1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 및, 2개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 표집되었다. 이 연구를 위한 최종분석대상이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253명의 보호관찰청소년 중에 재범 청소년이 51명, 초범 청소년이 202명으로 구성되었다. 남자가 196명이었으며 여자가 57명이었다. 보호관찰청소년 분석대상은 초범이 재범보다 많고,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것으로

표 1. 분석대상

성별	전체	보호관찰청소년			일반청소년
		재범	초범	계	범죄경력 무
남	374	45	151	196	178
여	136	6	51	57	79
계	510	51	202	253	257

분포되었는데, 실제로 보호관찰청소년들이 이러한 분포를 나타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재범의 수와 여자의 수를 별도 추가 표집을 하지 않고, 현실의 자연스러운 분포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였다. 일반청소년은 보호관찰을 받거나 소년원에 수감된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되었다. 보호관찰청소년 집단이 성별 구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청소년도 보호관찰청소년과 비슷한 성비를 이루도록 표집하였다. 일반청소년은 남녀 각각 178명, 79명으로서, 총 257명이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분석된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합한 전체 분석대상 수는 510명이었다.

측정도구

이 연구를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는 연구자에 의해 제작되었다.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 집단의 친구관계를 비교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두 집단에 비교할 문항들은 동일하게 질문지에 포함되었다. 친구관계의 질적인 측면을 분석하기 위한 5개의 자유반응 문항이 포함되었다. 괴로울 때 의논 대상, 친구와 활동 장소, 친구와 활동 내용, 친구와 함께 있으면 좋은 점, 친구를 신뢰하는 이유.

이외에 친구 수와 관련하여 양적인 정도를 직접 기록하는 문항을 일반청소년에게는 3개 제시하였다: 퇴학된 친구 수, 보호관찰 받은 친구 수, 소년원 경력이 있는 친구 수. 보호관찰청소년 경우는 이 3개에다가 공범친구가 보호관찰이나 소년원을 경험한 횟수를 기록하는 문항이 1개 추가되었다.

실시 및 분석방법

보호관찰청소년 질문지는 연구자가 I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직접 실시하였다. 보호관찰소에 보호관찰을 받기 위해 온 청소년들에게 이 질문지는 보호관찰관의 공식적인 평가 기록과는 무관하며 보호관찰청소년 집단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기초 자료수집의 연구 목적으로만 실시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응답해 달라는 부탁을 각별히 하면서 충분한 설득을 한 뒤에 질문지 실시를 진행하였다.

일반청소년 질문지는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전달받은 담임교사가 학교 교실에서 담당 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응답에 큰 어려움은 없는 간단한 질문들이었으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도록 질문지 실시 전에 협조를 구하였다.

괴로울 때 의논대상, 친구와 활동 장소, 친

구와 활동 내용, 친구와 함께 있으면 좋은 점, 친구를 신뢰하는 이유에 대한 문항의 분석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회수된 자유반응 응답들은 그대로 엑셀 프로그램에 입력되었으며, 동일한 질적 의미를 갖는 응답들끼리 묶고, 그것을 대표하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한 항목들을 개념적으로 재분류하여, 큰 틀의 범주들로 구성하였다. 정리된 개념 범주 및 항목들에 숫자가 부여되었으며, 이러한 숫자들을 SPSS에 입력하여, 분석표를 제작하였다. 모든 자료는 전체 집단의 반응분포와 더불어, 보호관찰청소년 재범집단, 초범집단 및 범죄경력이 없는 일반청소년집단의 3개 하위집단별로 정리되었다.

친구 수를 직접 기록한 3개의 문항, 즉 퇴학된 친구 수, 보호관찰 받은 친구 수, 소년원 경력이 있는 친구 수에 대한 분석은, 응답한 숫자를 그대로 SPSS에 입력하였다. 이 자료들은 χ^2 분석과 판별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결 과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친구관계 비교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친구관계를 괴로울 때 의논대상, 활동의 장소 및 내용, 친구와 함께 있으면 좋은 점과 신뢰의 이유, 퇴학된 친구 수, 보호관찰 받은 친구 수, 소년원 경력이 있는 친구 수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표 2는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괴로울 때 의논대상을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친구가 과반수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부모님이 약 1/4

에 가까운 비율을 보이고,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1/5 정도이다. 그 외에 기타 가족이나 선/후배 및 선생님이 지적되었지만, 각각 5% 미만이었다.

하위집단별로 보면 보호관찰청소년이나 일반청소년 모두 친구를 가장 많이 지적하는 점에서 일치하였다. 그러나 보호관찰청소년 중에서 재범인 경우는 거의 60%에 가깝고, 초범인 경우는 50% 이상이며, 일반청소년은 50% 미만으로 나타남으로써, 보호관찰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괴로운 문제나 고민을 친구와 더욱 의논하는 경향이 있었다.

보호관찰청소년들은 재범이든 초범이든 모두 친구 다음으로 부모님이 의논대상이었고, 그 다음에 스스로 해결한다가 세 번째 범주로 10%가 넘는 정도였다. 그러나 일반청소년들은 친구 다음으로 스스로 해결한다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부모님이 세 번째 범주로 확인되는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이 일반청소년들은 보호관찰청소년과 달리 괴로울 때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부모와 의논하는 경우보다 약간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보다는 친구와 의논하는 경우가 거의 두 배 정도로 현저히 많은 점에서는 보호관찰청소년들과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보호관찰청소년이나 일반청소년 모두, 괴로울 때 의논대상으로서 두 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친구와 의논을 하고 있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친구와 의논하는 청소년이 가장 많은 점에서 두 집단은 일치하였다.

친구와의 구체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표 3은 활동 장소를, 표 4는 활동 내용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3을 보면, 친구와의 활동 장소에서

표 2.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괴로울 때 의논대상

의논대상	집단	전체	보호관찰청소년		일반청소년
			재범(%)	초범(%)	범죄경력 무(%)
1. 친구		239 (50.1)	28 (58.3)	102 (51.8)	109 (47.0)
① 친구		230 (48.2)	26 (54.2)	97 (49.2)	107 (46.1)
② 이성친구		9 (1.9)	2 (4.2)	5 (2.5)	2 (.9)
2. 부모님		106 (22.2)	9 (18.8)	51 (25.9)	46 (19.8)
① 부모님		66 (13.8)	5 (10.4)	30 (15.2)	31 (13.4)
② 어머니		33 (6.9)	2 (4.2)	18 (9.1)	13 (5.6)
③ 아버지		7 (1.5)	2 (4.2)	3 (1.5)	2 (.9)
3. 스스로 해결		87 (18.2)	7 (14.6)	25 (12.7)	55 (23.7)
① 나 자신		42 (8.8)	5 (10.4)	15 (7.6)	22 (9.5)
② 혼자 고민함		18 (3.8)	1 (2.1)	8 (4.1)	9 (3.9)
③ 스스로 해결		17 (3.6)	-	1 (.5)	16 (6.9)
④ 얘기 안함		10 (2.1)	1 (2.1)	1 (.5)	8 (3.4)
4. 기타 가족		19 (4.0)	2 (4.2)	9 (4.5)	8 (3.5)
① 언니/형		12 (2.5)	1 (2.1)	6 (3.0)	5 (2.2)
② 동생		4 (.8)	1 (2.1)	2 (1.0)	1 (.4)
③ 삼촌/이모		3 (.6)	-	1 (.5)	2 (.9)
5. 선/후배		10 (2.1)	2 (4.2)	4 (2.0)	4 (1.7)
6. 선생님		10 (2.1)	-	5 (2.5)	4 (1.7)
① 선생님		7 (1.5)	-	3 (1.5)	4 (1.7)
② 상담선생님		3 (.6)	-	2 (1.0)	-
7. 기타		6 (1.2)	-	1 (.5)	5 (2.2)
① PC(채팅)		5 (1.0)	-	-	5 (2.2)
② 기타		1 (.2)	-	1 (.5)	-
계		477 (100.0)	48 (100.0)	197 (100.0)	232 (100.0)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은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재범 보호관찰청소년은 PC방이 35% 이상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유흥가가 30%에 가까운 비율로서 두 번째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유흥가로는 노래방이 가장 대표적으로 포함되었고, 그 다음으로 당구장, 호프집의 순서로 나타났다. 초범 보호관찰청소년은 PC방이 45.5%로 가장 많고, 그 다음

표 3.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친구와 활동 장소

친구와 활동장소	집단	전체	보호관찰청소년		일반청소년
			재범 (%)	초범(%)	범죄경력 무(%)
1. PC방		137 (27.6)	18 (35.3)	90 (45.5)	29 (11.7)
① PC방		90 (18.1)	12 (23.5)	61 (30.8)	17 (6.9)
② 오락실		30 (6.0)	4 (7.8)	19 (9.6)	7 (2.8)
③ 게임		17 (3.4)	2 (3.9)	10 (5.1)	5 (2.0)
2. 학교에서		100 (20.1)	5 (9.8)	13 (6.6)	82 (33.1)
① 학교를 같이 다닌다		29 (5.8)	1 (2.0)	-	28 (11.3)
② 이야기 한다		20 (4.0)	2 (3.9)	4 (2.0)	14 (5.6)
③ 운동 한다		19 (3.8)	2 (3.9)	6 (3.0)	11 (4.4)
④ 논다		18 (3.6)	-	3 (1.5)	15 (6.0)
⑤ 같이 공부 한다		14 (2.8)	-	-	14 (5.6)
3. 그냥 돌아다닌다		98 (19.7)	9 (17.6)	37 (18.7)	52 (21.0)
① 그냥 돌아다닌다		37 (7.4)	4 (7.9)	20 (10.1)	13 (5.2)
② 공원에서 논다		34 (6.8)	5 (9.8)	15 (7.6)	14 (5.6)
③ 같이 먹고 돌아다닌다		20 (4.0)	-	1 (.5)	19 (7.7)
④ 쇼핑		7 (1.4)	-	1 (.5)	6 (2.4)
4. 유흥가		93 (18.7)	14 (27.5)	34 (17.2)	45 (18.1)
① 노래방		60 (12.1)	7 (13.7)	21 (10.6)	32 (12.9)
② 당구장		21 (4.2)	7 (13.7)	7 (3.5)	7 (2.8)
③ 호프집		7 (1.4)	-	6 (3.0)	1 (.4)
④ 극장		5 (1.0)	-	-	5 (2.0)
5. 집에서		30 (6.0)	3 (5.9)	9 (4.5)	18 (7.3)
① 집에서 논다		22 (4.4)	3 (5.9)	6 (3.0)	13 (5.2)
② TV 본다		4 (.8)	-	2 (1.0)	2 (.8)
③ 이야기 한다		4 (.8)	-	1 (.5)	3 (1.2)
6. 친구 집		28 (5.6)	1 (2.0)	9 (4.5)	18 (7.3)
① 논다		24 (4.8)	1 (2.0)	9 (4.5)	14 (5.6)
② 이야기 한다		4 (.8)	-	-	4 (1.6)
7. 기타		11 (2.2)	1 (2.0)	6 (3.0)	4 (1.6)
① 아르바이트		8 (1.6)	1 (2.0)	6 (3.0)	1 (.4)
② 별로 하는 일 없다		3 (.6)	-	-	3 (1.2)
계		497 (100.0)	51 (100.0)	198 (100.0)	248 (100.0)

으로 그냥 돌아다닌다와 유흥가가 각각 20% 에 가까웠다. 일반청소년들은 보호관찰청소년 과는 현저하게 다른 반응 패턴을 보였다. 즉 학교에 있는 경우가 33% 이상으로 가장 많았

표 4.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친구와 활동 내용

친구와 활동장소	집단 전체	보호관찰청소년		일반청소년
		재범 (%)	초범(%)	범죄경력 무(%)
1. 게임한다	137 (27.6)	18 (35.3)	90 (45.5)	29 (11.7)
① PC방	106 (21.3)	14 (27.5)	70 (35.4)	22 (8.9)
② 오락실	31 (6.2)	4 (7.8)	20 (10.1)	7 (2.8)
2. 같이 논다	111 (22.3)	10 (19.6)	36 (18.2)	65 (26.2)
① 공원	34 (6.8)	5 (9.8)	15 (7.6)	14 (5.6)
② 집	30 (6.0)	3 (5.9)	9 (4.5)	18 (7.3)
③ 친구 집	28 (5.6)	1 (2.0)	9 (4.5)	18 (7.3)
④ 학교	19 (3.8)	1 (2.0)	3 (1.5)	15 (6.0)
3. 유흥가	93 (18.7)	14 (27.5)	34 (17.2)	45 (18.1)
① 노래방	60 (12.1)	7 (13.7)	21 (10.6)	32 (12.9)
② 당구장	21 (4.2)	7 (13.7)	7 (3.5)	7 (2.8)
③ 호프집	7 (1.4)	-	6 (3.0)	1 (0.4)
④ 극장	5 (1.0)	-	-	5 (2.0)
4. 학교생활을 함께 한다	81 (16.3)	4 (7.8)	10 (5.1)	67 (27.0)
① 등학교를 같이 한다	28 (5.6)	-	-	28 (11.3)
② 이야기한다	20 (4.0)	2 (3.9)	4 (2.0)	14 (5.6)
③ 운동한다	19 (3.8)	2 (3.9)	6 (3.0)	11 (4.4)
④ 공부한다	14 (2.8)	-	-	14 (5.6)
5. 그냥 돌아다닌다	64 (12.9)	4 (7.8)	22 (11.1)	38 (15.3)
① 그냥 돌아다닌다	37 (6.4)	4 (7.8)	20 (10.1)	13 (5.2)
② 같이 먹고 돌아다님	20 (4.0)	-	1 (0.5)	19 (7.7)
③ 쇼핑한다	7 (1.4)	-	1 (0.5)	6 (2.4)
6. 기타	11 (2.2)	1 (2.0)	6 (3.0)	4 (1.6)
① 아르바이트	8 (1.6)	1 (2.0)	6 (3.0)	1 (0.4)
② 별로 하는 일 없다	3 (0.6)	-	-	3 (1.2)
계	497 (100.0)	51 (100.0)	198 (100.0)	248 (100.0)

으며, 두 번째로 그냥 돌아다닌다가 20% 이상 에 있는 경우가 지적되었는데, 보호관찰청소년보다 일반청소년에게서 이러한 반응율이 이었다. 이외에도 집에 있는 경우나 친구 집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친구와의 활동 장소에 대한 반응을 종합해 볼 때, 보호관찰청소년들은 평소에 주로 PC방이나 유흥가에 있는 경우가 많고, 일반청소년들은 학교에 있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차이가 있었다. 보호관찰청소년 중에서도 재범청소년이 초범청소년보다 유흥가에 있는 경우가 현저히 많았다. 따라서 친구와의 활동 장소 측면에서 볼 때,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은 큰 차이를 보였다.

친구와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분석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서 친구와 활동 장소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과 일관되게, 활동 내용에서도 큰 차이가 밝혀졌다. 즉 재범 보호관찰청소년은 게임을 한다가 35.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유흥가에 있다고 반응한 경우가 27.5%로 많았다. 초범 보호관찰청소년도 게임을 한다가 거의 반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같이 논다와 유흥가가 각각 20%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에 일반청소년 경우는 학교생활을 함께 한다가 27.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같이 논다가 26.2%로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보호관찰청소년은 재범과 초범 모두 학교생활을 함께 한다는 비율이 10%에 훨씬 못미친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보호관찰청소년은 친구와 함께 게임을 하거나 유흥가에 있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라면, 일반청소년은 친구와 학교생활을 함께 하거나 같이 노는 경우가 가장 많음으로써,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표 3의 활동 장소와 연결하여 볼 때, 보호관찰청소년은 재범이든 초범이든 친구와 주로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유흥가에서 함께 지내는 것

이 대표적이라면, 일반청소년은 주로 학교에서 친구와 학교생활을 함께 하고, 친구와 어울려 다니며 함께 노는 경향이 대표적인 활동 장소에서의 활동 내용이었다. 그러므로 보호관찰청소년은 친구와의 활동 장소와 활동 내용이 일반청소년과 현저하게 구분되는 경향을 보이며, 주로 PC방에서 게임을 하거나 노래방이나 당구장 등에서 친구와 함께 시간을 소일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는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친구와 함께 있으면 좋은 점을 질문하였을 때의 반응을 정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편하다가 약 40%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인 범주로 확인되었고, 그 다음으로 재미있다가 3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세 번째로는 나를 이해해 준다가 10% 이상의 반응을 보였다. 이외에도 의지가 된다, 좋은 점 없다, 그냥 좋다는 세 개의 범주가 각각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인 편하다라는 범주 내에는 마음이 통한다와 마음이 맞는다가 친하다 등의 항목들이 포함되었다.

하위집단별 분석결과를 보면, 재범 보호관찰청소년은 편하다가 거의 반수에 가까운 가장 대표적인 범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재미있다, 나를 이해해 준다라는 범주의 순서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좋은 점이 없다는 범주가 의지가 된다는 범주보다 더 반응율이 높았다. 초범 보호관찰청소년도 편하다와 재미있다는 범주가 각각 30% 이상의 높은 반응율을 나타내고, 나를 이해해 준다와 좋은 점 없다는 범주가 같은 반응율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재범 보호관찰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초범 보호관찰청소년도 친구가 의지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점이 없다는 반응율이 더 높은

표 5.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친구와 함께 있으면 좋은 점

친구가 좋은 점	집단 전체	보호관찰청소년		일반청소년
		재범 (%)	초범(%)	범죄경력 무(%)
1. 편하다	199 (39.6)	24 (47.1)	79 (39.1)	96 (38.4)
① 편하다	155 (30.8)	21 (41.2)	60 (29.7)	74 (29.6)
② 마음이 통한다	24 (4.8)	3 (5.9)	17 (8.4)	4 (1.6)
③ 마음이 맞는다	9 (1.8)	-	2 (1.0)	7 (2.8)
④ 친하다	6 (1.2)	-	-	6 (2.4)
⑤ 착하다	5 (1.0)	-	-	5 (2.0)
2. 재미있다.	158 (31.4)	14 (27.5)	65 (32.2)	79 (31.6)
① 재미있다.	81 (16.1)	11 (21.6)	38 (18.8)	32 (12.8)
② 즐겁다	52 (10.3)	3 (5.9)	17 (8.4)	32 (12.8)
③ 같이 논다	14 (2.8)	-	6 (3.0)	8 (3.2)
④ 심심하지 않다	11 (2.2)	-	4 (2.0)	7 (2.8)
3. 나를 이해해준다	61 (12.1)	6 (11.8)	16 (7.9)	39 (15.6)
① 받아 준다	18 (3.6)	2 (3.9)	2 (1.0)	14 (5.6)
② 이해해 준다	17 (3.4)	1 (2.0)	6 (3.0)	10 (4.0)
③ 도움이 된다	15 (3.0)	1 (2.0)	3 (1.5)	11 (4.4)
④ 잘해 준다	11 (2.2)	2 (3.9)	5 (2.5)	4 (1.6)
4. 의지가 된다	34 (6.8)	3 (5.9)	12 (5.9)	19 (7.6)
① 대화가 된다	21 (4.2)	1 (2.0)	7 (3.5)	13 (5.2)
② 고민 상담	13 (2.6)	2 (4.0)	5 (2.5)	6 (2.4)
5. 좋은 점 없다	33 (6.6)	4 (7.8)	16 (7.9)	13 (5.2)
① 좋은 점 없다	29 (5.8)	3 (5.9)	13 (6.4)	13 (5.2)
② 잘 모르겠다.	4 (0.8)	1 (2.0)	3 (1.5)	-
6. 그냥 좋다	15 (3.0)	-	11 (5.4)	4 (1.6)
① 그냥 좋다	10 (2.0)	-	8 (4.0)	2 (.8)
② 좋다	5 (1.0)	-	3 (1.5)	2 (.8)
7. 기타	3 (.6)	-	3 (1.5)	-
계	503 (100.0)	51 (100.0)	202 (100.0)	250 (100.0)

표 6.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친구를 신뢰하는 이유

친구신뢰이유	집단 전체	보호관찰청소년		일반청소년
		재범 (%)	초범(%)	범죄경력 무(%)
1. 무조건 신뢰	152 (42.2)	13 (38.2)	51 (38.3)	88 (45.6)
① 무조건 신뢰	97 (26.9)	8 (23.5)	31 (23.3)	58 (30.1)
② 친구이므로	55 (15.3)	5 (14.7)	20 (15.0)	30 (15.5)
2. 친밀함	83 (23.1)	6 (17.6)	37 (27.8)	40 (20.7)
① 친밀함	35 (9.7)	-	10 (7.5)	25 (13.0)
② 오랫동안 사귀	31 (8.6)	5 (14.7)	17 (12.8)	9 (4.7)
③ 소중함	12 (3.3)	1 (2.9)	10 (7.5)	1 (.5)
④ 편함	5 (1.4)	-	-	5 (2.6)
3. 나를 이해해 준다	65 (18.1)	9 (26.5)	26 (19.5)	30 (15.5)
① 이해해준다	23 (6.4)	-	7 (5.3)	11 (5.7)
② 잘해준다	21 (5.8)	3 (8.8)	10 (7.5)	8 (4.1)
③ 같은 또래로서의 공감	11 (3.1)	-	4 (3.0)	7 (3.6)
④ 나를 믿어줌	10 (2.8)	1 (2.9)	5 (3.8)	4 (2.1)
4. 의지가 됨	22 (6.1)	3 (8.8)	11 (8.3)	8 (4.1)
① 의지가 됨	11 (3.1)	2 (5.9)	7 (5.3)	2 (1.0)
② 솔직한 대화	6 (1.7)	-	3 (2.3)	3 (1.6)
③ 고민상담	5 (1.4)	1 (2.9)	1 (.8)	3 (1.6)
5. 잘 모르겠음	20 (5.6)	-	-	20 (10.4)
6. 좋은 친구	18 (5.0)	3 (8.8)	8 (6.0)	7 (3.6)
① 착함	9 (2.5)	2 (5.9)	6 (4.5)	1 (.5)
② 좋은 친구	9 (2.5)	1 (2.9)	2 (1.5)	6 (3.1)
계	360 (100.0)	34 (100.0)	133 (100.0)	193 (100.0)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반면에 일반청소년은 편하다와 재미있다 범주가 각각 30% 이상의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나를 이해해 준다, 의지가 된다, 좋은 점 없다 범주의 순서로 나타남으로써, 좋은 점 없다는 범주의 반응율이 보호관찰청소년에 비해 낮은

순위를 보이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보호관찰청소년이든 일반청소년이든 친구와 함께 있으면 좋은 점으로 마음이 편하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고, 이외에도 재미있다는가 나를 이해해 준다는 것이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러

나 보호관찰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친구와 함께 있어도 좋은 점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차이를 보였다.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이 친구를 신뢰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재범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에 무조건 신뢰가 40% 가까운 비율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나를 이해해 준다가 30% 가까운 비율을 나타내며, 세 번째로는 친밀함이 20% 정도 되었다. 초범 보호관찰청소년 경우는 무조건 신뢰가 재범 보호관찰청소년과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는 점에서 일치하였으나, 두 번째로는 친밀함, 세 번째로는 나를 이해해 준다가 지적되었다. 일반청소년은 무조건 신뢰가 45% 이상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친밀함, 나를 이해해 준다는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보호관찰청소년이나 일반청소년 모두 친구를 신뢰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친구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뢰하는 것으로 공통적으로 밝혀졌다. 그 다음으로는 친구에 대한 친밀함이나 나를 이해해 준다가 대표적인 신뢰의 이유로 부각되었

다. 이 외에도 의지가 됨, 잘 모르겠음이 신뢰의 이유로 포함되었다.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퇴학된 친구 수, 보호관찰 받은 친구 수, 소년원 경력이 있는 친구 수를 각각 χ^2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가 표 7~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퇴학된 친구 수를 분석한 표 7을 보면,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일반청소년은 퇴학된 친구가 없다는 반응이 86.4%로 대다수인데 비해, 초범 보호관찰청소년은 없음이 75.9%로 줄어들고, 재범 보호관찰청소년은 48.8%로 반수 이하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그 대신에 재범 보호관찰청소년은 퇴학된 친구 수의 실제적인 비율이 매우 높았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반청소년보다는 초범 보호관찰청소년이, 초범보다는 재범 보호관찰청소년이 퇴학된 친구 수가 더욱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8은 보호관찰을 받은 경력을 가진 친구 수가 집단별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세 집단은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청

표 7.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퇴학된 친구 수의 차이 χ^2 검증

퇴학된 친구 수	전체	보호관찰청소년		일반청소년
		재범 (%)	초범(%)	범죄경력 무(%)
없음	347 (79.7)	21 (48.8)	110 (75.9)	216 (86.4)
1명	47 (10.7)	6 (14.0)	15 (10.3)	26 (10.4)
2명	24 (5.5)	5 (11.6)	13 (9.0)	6 (2.4)
3명	9 (2.1)	5 (11.6)	2 (1.4)	2 (0.8)
4명	11 (2.5)	4 (9.4)	5 (3.4)	2 -
5명이상	2 (0.5)	2 (4.6)	-	-
전체	438 (100.0)	43 (100.0)	145 (100.0)	250 (100.0)
χ^2 통계치		$\chi^2=122.18, df=10, p<.001$		

표 8.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보호관찰 받은 친구 수의 차이 χ^2 검증

보호관찰 받은 친구 수	전체	보호관찰청소년		일반청소년
		재범 (%)	초범(%)	범죄경력 무(%)
없음	380 (78.8)	18 (38.4)	138 (73.4)	224 (90.7)
1명	53 (11.0)	16 (34.0)	17 (9.0)	20 (8.1)
2명	21 (4.3)	6 (12.8)	13 (6.9)	2 (0.8)
3명	14 (2.9)	5 (10.6)	8 (4.3)	1 (0.4)
4명	7 (1.5)	1 (2.1)	6 (3.2)	-
5명이상	7 (1.5)	1 (2.1)	6 (3.2)	-
계	478 (100.0)	47 (100.0)	188 (100.0)	247 (100.0)
χ^2 통계치		$\chi^2=41.92, df=10, p<.001$		

표 9.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소년원 경력이 있는 친구 수의 차이 χ^2 검증

소년원 경력이 있는 친구 수	전체	보호관찰청소년		일반청소년
		재범 (%)	초범(%)	범죄경력 무(%)
없음	454 (91.9)	44 (93.6)	172 (91.5)	238 (96.4)
1명	12 (3.8)	2 (4.3)	7 (3.7)	3 (3.6)
2명	4 (1.7)	1 (2.1)	3 (1.6)	-
3명	-	-	-	-
4명	6 (2.6)	-	6 (3.2)	-
계	476 (100.0)	47 (100.0)	188 (100.0)	241 (100.0)
χ^2 통계치		$\chi^2=24.03, df=6, p<.01$		

소년은 보호관찰 받은 친구가 없는 경우가 90% 이상인데 비해, 초범 보호관찰청소년은 73.4%로 비율이 낮아지고, 재범 보호관찰청소년은 38.4%로 현저하게 낮았다. 그 대신에 재범 보호관찰청소년은 보호관찰 받은 친구 수 1명이 34.0%, 2명이 12.8%, 3명이 10.6%로서, 보호관찰을 받은 경력이 있는 친구들이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호관찰을 받은 친구 수에 있어 일반청소년

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초범 청소년과도 현저한 차이가 있었고, 보호관찰을 받은 친구 수가 훨씬 많았다.

소년원 경력이 있는 친구 수를 χ^2 검증한 결과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세 집단은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일반청소년은 소년원 경력을 가진 친구가 없다는 반응이 96.4%로 대부분이었으나, 보호관찰청소년은 없다는 반응이 초범 경우에 91.5%로 일

반청소년보다 반응율이 낮았고, 재범 경우는 93.6%로 더욱 낮은 반응율을 보였다. 이는 일반청소년보다는 초범 보호관찰청소년일수록, 초범보다는 재범 보호관찰청소년일수록, 소년원 경력이 있는 친구 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보여준다.

보호관찰 재범 청소년과 초범 청소년의 공범 친구관계 비교

이상에서 재범 및 초범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친구관계를 여러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여기에서는 보호관찰청소년 중에서 보호관찰 경력별로 재범과 초범 청소년이 공범친구의 보호관찰/소년원 경험 횟수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χ^2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가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두 집단 사이에 $p < .001$ 수준의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초범 집단은 없다가 73.3%로 2/3 정도를 차지하나, 재범 집단의 경우는 42.9%로 반수 미만이었다. 재범 집단의 경우에, 1회가 34.7%, 2회가 14.3%로, 초범 집단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재범 보호관찰청소년이 초범 보호관찰청소년보다 공범친구의 보

호관찰 및 소년원 경험 횟수가 현저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친구관계를 통한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판별

이상에서 분석한 친구관계와 관련하여 양적으로 측정된 변인인 퇴학된 친구 수, 보호관찰 받은 친구 수, 소년원 경력이 있는 친구 수를 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이 어느 정도 판별되며, 각 변인들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판별분석을 시도하였다. 판별분석에서 일반청소년은 1로, 재범 및 초범 보호관찰청소년은 2로 부호화하였다. 예측변량 분류정확률을 보면 일반청소년은 87.5%가, 보호관찰청소년은 62.8%가 정확하게 분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분류정확률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1에서 3개 변인들의 표준판별화계수가 .86~.92의 매우 높은 정적인 값을 보이며, 모두 $p < .001$ 수준에서 매우 의미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퇴학된 친구 수, 보호관찰 받은 친구 수, 소년원 경력이 있는 친구 수가

표 10. 보호관찰 경력별 공범친구의 보호관찰/소년원 경험 횟수의 차이 χ^2 검증

공범친구의 보호관찰/ 소년원 경험 횟수	전체	보호관찰 경력별	
		재범 (%)	초범(%)
없다	142 (66.4)	21 (42.9)	121 (73.3)
1회	43 (20.1)	17 (34.7)	26 (15.8)
2회	16 (7.5)	7 (14.3)	9 (5.5)
3회	8 (3.7)	4 (8.1)	4 (2.4)
4회 이상	5 (2.3)	-	5 (3.0)
계	214 (100.0)	49 (100.0)	165 (100.0)
χ^2 통계치		$\chi^2=40.07, df=4, p<.001$	

표 11. 친구관계를 통한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판별

판별변인	표준판별화계수			
퇴학된 친구 수	.901***			
보호관찰 받은 친구 수	.857***			
소년원 경력이 있는 친구 수	.924***			
정준상관계수	.390***			
예측변량 분류정확률(%)	집단	일반청소년	보호관찰청소년	계
	일반청소년	225(87.5)	32(12.5)	257(100.0)
	보호관찰청소년	94(37.2)	159(62.8)	253(100.0)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판별해 주는 매우 유의한 변인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보호관찰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보다는 퇴학된 친구의 수가 많으며, 보호관찰을 받은 친구 수도 많고, 소년원 경력을 가진 친구 수도 더 많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세 변인이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구분해 주는 매우 의미있는 기준으로 작용함이 확인되었다.

표 12는 친구관계를 통한 재범과 초범 보호관찰청소년의 판별분석을 시도한 결과이다. 판별변인으로는 표 11에서 포함된 퇴학된 친

구 수, 보호관찰 받은 친구 수, 소년원 경력이 있는 친구 수와 더불어, 공범친구의 보호관찰 및 소년원 경험 횟수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공범친구의 범죄경력이 판별변인으로 추가되었다. 예측변량 분류정확률을 보면 초범은 87.1%가, 보호관찰청소년은 68.6%가 정확하게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보아 전반적으로 양호한 분류정확률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표 12에서 4개 변인들의 표준판별화계수가 .74~.93의 높은 정적인 값을 보이며,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4개 변인 중에서

표 12. 친구관계를 통한 재범과 초범 보호관찰청소년의 판별

판별변인	표준판별화계수			
퇴학된 친구 수	.736***			
보호관찰 받은 친구 수	.812***			
소년원 경력이 있는 친구 수	.929***			
공범친구의 보호관찰/소년원 경험 횟수	.863***			
정준상관계수	.588***			
예측변량 분류정확률(%)	집단	초범	재범	계
	초범	176(87.1)	26(12.9)	202(100.0)
	재범	16(31.4)	35(68.6)	51(100.0)

도 소년원 경력 친구 수의 표준편화계수가 가장 큰 값을 보였다. 따라서 퇴학된 친구 수, 보호관찰 받은 친구 수, 소년원 경력이 있는 친구 수 및 공범친구의 보호관찰/소년원 경험 횟수가 모두 초범 및 재범 보호관찰청소년을 변별해 주는 의미있는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소년원을 다녀온 친구가 많은지 여부가 보호관찰청소년을 초범 및 재범으로 구별하는 가장 강력한 변별력을 갖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청소년 일탈행동이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학생관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Park & Kim, 2004, 2006). 그중에서 친구관계와 관련된 경험과학적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친구 변인이 청소년 일탈행동의 촉진자로 작용하고 있었다(박영신, 김의철, 2004). 박영신과 김의철(2010)이 청소년과 가장 친한 친구를 서로 짝 지워서 친구의 영향을 검증하였을 때에도, 친구의 일탈행동은 청소년 일탈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예언변인으로서, 고등학생 집단의 경우에 부모보다 친구가 더 큰 영향력을 미쳤다. 비행친구와 청소년 비행 사이에는 순환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정기원(2006)의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처럼,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비행친구와의 교류에 대한 부분에 큰 관심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에도 친구관계는 청소년 일탈행동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다. 친구와 활동하는 장소 및 활동의 내용을 살펴볼 때, 보호관찰청소년은 친구와

주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일반청소년은 주로 학교에서 같이 노는 경우가 많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또한 보호관찰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퇴학된 친구 수, 보호관찰 받은 친구 수, 소년원 경력이 있는 친구 수가 훨씬 더 많았다. 보호관찰 경력별로 보면, 재범이 초범보다 공범친구의 보호관찰 및 소년원 경험 횟수가 더 많았다, 친구관계에 기초하여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판별분석을 시도한 결과, 퇴학된 친구 수, 보호관찰 받은 친구 수, 소년원 경력이 있는 친구 수는 두 집단을 판별하는 매우 의미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재범과 초범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별분석한 결과도, 퇴학된 친구 수, 보호관찰 받은 친구 수, 소년원 경력이 있는 친구 수는 의미있는 판별변인으로 확인되었으며, 공범친구의 보호관찰 및 소년원 경험 횟수도 의미있는 판별변인으로 포함되었다.

이는 친구관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과 일관된 맥락의 결과들이라 할 수 있다. 일관된 결과를 보이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증가시켰고(이은희, 공수자, 이정숙, 2004), 비행친구 수가 지속적 비행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밝혀졌으며(김희화, 2001), 가정 학교 친구관련 변인들 중에서 비행친구의 존재 유무가 학교폭력가해나 학교폭력피해를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임이 확인(김선애, 2006)된 바 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또래동조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친한 친구가 비행을 많이 하면 친구의 비행이 청소년의 비행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희화, 2009). 또한 비행에서의 공범 수가 보호관찰청소년들의 재범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기여하며(이수정, 홍영오, 2005), 보호관찰기간 동안 재범집단과

비재범집단에서 공범 유무에 차이가 있었다(노일석, 2009).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들이 밝혀졌지만 몇몇 제한점들이 있다. 첫째는 측정도구가 자유반응형 질문에 질적인 내용을 직접 응답하게 되어 있고, 친구의 수와 관련된 질문들은 양적으로 답을 하나 친구의 수를 직접 기록하기 때문에, 측정변인의 신뢰도가 산출되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확인될 수 있는 다양한 측정변인들을 연구에 추가함으로써, 친구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측정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친구관계만 비교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들이 소년원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에도 유사한 반응패턴이 나오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들보다는 소년원에 수감된 청소년들이 객관적으로 더 심각한 범죄행동을 한 것으로 법적 판결을 받은 경우이므로,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가 소년원청소년들과 일반청소년들 대상으로도 반복 검증이 된다면, 이 연구의 결과를 보다 일반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비슷한 경향성이 있을 것으로 유추되기는 하나, 범죄행동을 하여 소년원에 수감된 청소년 등 다른 집단에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 현재로서는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친구관계 차이로만 국한해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친구관계의 차이만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부모자녀관계나 친구관계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는 바가 없어, 청소년에게 의미있는 인간관계 변인들 간의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이해에 한계가 있다. 넷째, 이 연구의 χ^2 검증으로 분석한 표들에서

사례 수 5 미만의 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 측정학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들은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청소년 일탈행동과 관련된 친구관계 변인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그러한 변인을 측정하는 방식도 측정학적으로 보다 양호하게 함으로써, 친구관계와 관련된 연구의 폭을 넓혀 나가면, 보다 풍부한 논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소년원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친구관계 또는 공범관계에 대한 분석도 진행함으로써,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의 일반화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친구관계에서의 차이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가정에서 부모자녀관계에서의 문제나 갈등이 청소년 일탈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비행친구가 어떠한 매개효과를 갖는지 그러한 중재변인으로서의 작용에 대해 분석해 본다면, 친구관계의 직접적인 영향만이 아니라 매개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통합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와 유사한 유형의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표집 수를 충분히 함으로써 χ^2 검증 시에 각 셀에 포함되는 사례 수가 측정학적인 제한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다 신뢰로운 결과의 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사회는 짧은 기간 동안 큰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한 발전의 원동력으로 교육의 힘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교육적 성취의 저변에는 성취의 그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통을 받는 집단도 공존해 왔다(박영신, 김의철, 2008). 한국 청소년들의 학업성취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동안, 우리 사회의 한 구석에서는 일탈청소년들이 학교를 멀리한 채 친구들과 어울려 일탈행동의 늪에 빠져들고, 사소한 일탈이 심각한 비행이나 범죄로, 범죄

가 누적되는 재범으로 확산되는 현상도 동시에 존재해 왔다. 일탈청소년들에게 있어 부모는 선택할 수 없었던 운명적인 관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가정환경을 청소년으로서는 통제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사실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일탈행동에 빠져드는 청소년들을 위해, 가정을 어떤 방향으로든 바꾸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하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있어 친구는 상당부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관계이라는 점에 희망의 빛이 보인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기 보다는 통제가능한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이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친구를 지혜롭게 선택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나가는 역량을 키워준다면, 선한 친구를 사귀어 나갈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청소년이 보호관찰을 받게 될 확률이나 재범을 범할 확률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경연, 하영희 (2003). 죄책감, 도덕적 이탈 및 친구의 규칙위반성향과 청소년의 규칙 위반행동.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2), 39-52.
- 김선애 (2006). 가정, 학교, 친구 관련변인과 학교폭력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4(1), 101-126.
- 김의철, 박영신 (1999).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 김희화 (2001). 청소년의 초기 비행과 지속적 비행에 대한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8(1), 143-162.
- 김희화 (2009). 청소년 초기의 또래동조성과 비행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감독 및 친한 친구 비행의 중재효과. 청소년학연구, 16(7), 127-147.
- 노일석 (2009). 청소년 절도사범 재범 예측 요인: 절도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LJP-RRAR)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2), 449-470.
- 박순길, 조증열, 박영호 (2003). 또래비행동조, 신체적 성숙 및 스트레스가 중학생의 흡연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3), 473-486.
- 박영신, 김의철 (1998). 청소년 비행과 성취행동: 가정환경, 귀인양식, 건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29-53.
- 박영신, 김의철 (2004).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일탈행동: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 학생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특집호), 87-115.
- 박영신, 김의철 (2006). 청소년기 신뢰의식의 형성과 집단별 차이 비교: 인간관계 신뢰에서의 토착심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3), 85-127.
- 박영신, 김의철 (2008). 한국사회와 교육적 성취 (III): 성취의 그늘, 한국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 심리적 역동.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특집호, 223-253.
- 박영신, 김의철 (2010). 친구가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 부모자녀 갈등 및 부모의 통제를 중심으로. 한국

- 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6(3), 385-422.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4). 한국 일탈 청소년의 토착심리 탐구: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1), 107-145.
- 신경민, 신윤미, 김선영, 조선미 (2010). 청소년기 비행 행동의 초기 위험 요인: 6-8년 중 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2), 597-606.
- 이수정, 홍영오 (2005). 보호관찰대상자 재범관련 예측변수 탐색. 한국심리학회 2005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178-179.
- 이은희, 공수자, 이정숙 (2004). 청소년들의 가정, 학교, 지역의 심리사회적 환경과 학교폭력과의 관계: 분노조절과 비행친구 접촉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123-145.
- 이희정, 이성철 (2005). 보호관찰 초범과 재범 청소년 및 일반청소년의 도덕적 정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4), 51-67.
- 정기원 (2006). 비행친구: 청소년 비행의 원인인가, 아니면 결과인가? 청소년학연구, 14(1), 213-236.
- 조윤주, 강란혜 (2010).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이 아동청소년 가출에 미치는 영향에서 비행친구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7(8), 177-196.
- Kim, Y. H., Park, Y. S. & Kim, U. (2007). Factors influencing delinquent behaviors among Korean adolescents: Longitudinal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7th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p.199-120. July 25-28, Kota Kinabalu, Malaysia.
- Lee, E. H., & Kim, M. J. (2003). Media violence, anger, contact with delinquent friends, and bullying at school in Korea. *The 4th Asia-South Pacific Association of Sport Psychology International Congress Program & Proceedings*, pp.53-57. July 1, 2003. Seoul: Kookmin Uni.
- Park, Y. S. & Kim, U. (2003). The formation and change of adolescents' delinquent behavior. Paper presented at Korea-Japan Seminar, Tokyo University, Japan.
- Park, Y. S., & Kim, U. (2004). Paths to academic achievement, delinquency and life-satisfaction: Longitudinal analysis of influences of psychological, relational and cultural factors. Invited keynote address at the 17th International Congress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p. 11-12. August 2-6. Shaanxi Normal University, Xi'an, China.
- Park, Y. S. & Kim, U. (2006). The nature and dynamics of school violence and delinquency in Korea: The influence of parents, teachers and friends. Paper presented at the 2006 international conference 'Asia's educational miracle: Child development in family, school and cultural contexts.'. p.61. October 28-29, Inha University, Korea.

논문투고일 : 2010. 10. 20

1 차심사일 : 2010. 11. 08

게재확정일 : 2010. 11. 16

Comparison of relationship with friends among adolescents under probation and high school students

Uichol Kim

Inha University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Young-Shin Park

Inha University
Dept. of Education

Soo Yeon Tak

Inh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relationship with friends among adolescents under probation and high school students without any criminal record. A total of 510 respondents (253 adolescents under probation, 257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Results indicate that both adolescents under probation and high school students reported that they talk to talked to their friends when they were lonely, that they were comfortable when they are with their friends, and that they trusted their friends unconditionally. However, the two groups showed a difference in the place that they meet their friends. Adolescents under probation are likely to meet their friends at Internet Café to play internet games, while high school students are likely to meet their friends near their school. Compared to high school students, adolescents under probation had more friends who were expelled from school, who were under probation and who have been previously incarcerated. For adolescents under probation, compared to first time offenders, the repeat offenders were more likely to have friends who were under probation and who have been previously incarcerated. When discriminant analysis were conducted for adolescents under probation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two groups can be distinguished by the number of friends expelled from school, number of friends under probation, and number of friends who have been previously incarcerated. For adolescents under probation, compared to first time offenders, the repeat offenders could be distinguished by the number of friends expelled from school, number of friends under probation, number friends who have been previously incarcerated, and number of times their partners in crime were under probation or incarcerated.

Key words : adolescents under probation, high school students, delinquent behavior, relationship with friends, number of friends expelled from school, friends incarcerated, partners in crime.